고유가·불황 속 교통수단 이용 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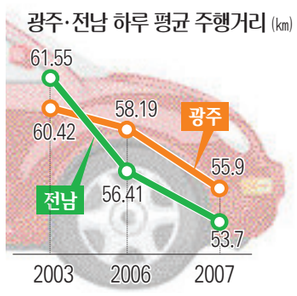
자동차 주행거리 '뚝'

관용차는 되레 늘어

고유가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자동차 하루 평균 주행거리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관용차는 주행거리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2007년 자동차 주행거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54.8㎞로 지난 2006년에 비해 2.5㎞ 감소했다.

전국 자동차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지난 1985년 119.3㎞에서 1998년 63.9㎞까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다가 2004년에는 60.9㎞, 2005년에는 58.6㎞를 기록하는 등 2000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한해동안 2.5㎞가 줄어든 것은 최근 추세에 비춰 대폭 감소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광주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55.9㎞로 지난 2006년보다 2.29㎞ 줄었다. 전남지역은 2006년(56.41㎞)보다 2.71㎞ 줄었다.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보면 광주·전남지역의 주행거리가 각각 4.52㎞, 7.85㎞ 감소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관용차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지난해 34.7㎞로 2003년 34.32㎞보다 오히려 0.38㎞ 소폭 증가했다. 자가용이나 영업용에 비해 고유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운행이 줄고 대중교통 운송 체계가 개선된 게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부산시가 58.7㎞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행거리가 가장 길었으며, 이어 서울 56.4㎞, 광주 55.9㎞, 울산 50.7㎞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1천832개 자동차검사소에서 감사를 받은 400만대(전체 등록대수 중 24.5%)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통안전공단 조사분석팀 관계자는 "2008년 주행거리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자가용 이용 감소와 공공기관 2부제 운행 등의 영향이 반영돼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필상기자 kps@

시내버스·지하철로

대중교통 이용 늘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주 시내버스 일일평균 이용객은 45만6천328명으로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기 전인 올해 1월~8월 일일평균 이용객 42만1천911명에 비해 7.5% 증가했다.

올해 10월 일일평균 이용객은 고유가와 고물가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았던 지난 4월 이용객(45만9천869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광주시는 국제유가 급락에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반적인 연말 이용객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지난달 이용객 집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10월 이용객에 비해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마다 연말이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객도 급증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하철 1호선 일일평균 이용객은 4만9천458명으로 1~8월 일일평균 이용객 4만2천893명에 비해 13.2%나 늘어났다.

이 같은 이용객은 고유가 여파가 극에 달했던 6월 이용객(5만여명)에 근접한 것으로, 경기침체 영향에 민감한 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시간강사 논문 도용 교수 벌금형

시간강사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수차례 도용하고 이를 자신의 연구실적에 포함시켜 승진까지 한 현직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2일 소속 학과 시간강사의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회지에 제출하고, 이를 승진심사 서류로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광주 모 대학교 박모 부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시간강사 허모씨가 학술지에 발표했거나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작성한 논문을 4차례 도용해 자신의 이름을 끼워넣거나 허씨의 이름을 뺀 뒤 관련 학회지에 이들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2일 광주시 동구 소태동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에서 연말연시 대낮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낮에 웬 단속" 곳곳 실랑이

광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표정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소태동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 광주동부경찰 교통경찰과 의경 등 30여명의 경찰관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날은 경찰이 연말연시 2개월동안 특별음주운전단속에 나선 바로 다음날이다. 경찰은 이날 차량 통행량이 많고, 단속사각지대인 유료도로를 단속 지점으로 정했다.

경찰의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운전자들은 적잖이 당황했다. 운전자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경찰관을 아래 위로 훑어 보고는 "대낮부터 뭐야"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불만스러운 듯 급정거·급출발을 하기도 했다.

광주동부경찰 김철호(51) 팀장은 "밤에 하는 음주단속은 그나마 운전자들이 '밤이니까'하는 생각으로 협조해주지만 낮에는 '대낮에 웬 단속이냐'며 욕을 많이 한다"며 "특히 단속 때문에 길이 막히기라도 하면 더 난폭해진다"고 대낮 음주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음주단속 현장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졌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가 하면 경기 탓을 하며 단속 경찰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이유도 다양했다. 운전자 P씨는 "점심 먹으면서 탄산음료 한 잔 마신 게 전부다. 장사도 안돼 죽겠는데, 경찰까지 날 힘들게 하느냐"며 따졌다.

경찰은 이날 음주단속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의 운전자 4명을 훈방조치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올 10월 말까지 음주운전자 6천714명을 단속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9천924명에 비해 32%가 줄어든 수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노건평씨 낚시 탓 송사 휘말려

'완도 기와집' 마찰 1심서는 노씨 승소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좋아하는 낚시 탓에 송사(訟事)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순천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노씨와 완도군 금일읍 원도에 사는 K씨를 상대로 2천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완도에 있는 기와집을 고인이 된 아버지가 사들였는데 K씨와 노씨가 2003년 7월 임의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다른 건물을 지으려했다"고 노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월 1일 "철거된 건물이 A씨 아버지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올해 3월 광주지법에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제7민사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재판을 속행했으며, 오는 10일에도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A씨는 "당시 돌담과 기와집을 허무는 데 노씨가 깊이 개입했었고, 청와대가 나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담을 원상복구 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노씨와 K씨 측은 이와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K씨는 "현재 기와 집터 토지의 소유권은 A씨 아버지 쪽으로 이전되지도 않았으며 허물어진 폐가도 정당하게 매입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K씨는 "노씨 역시 낚시를 즐기려고 2차례 정도 들른 게 고작이고, 노씨와 호형호제하던 이모씨라는 사람이 돌담 및 기와집 철거와 가건물 건설을 주도했다"며 "담을 원상복구한 것도 청와대가 아니라 이씨"라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운찬 〈7668〉 김종두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시공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971

PC방 위장 취업 현금 '슬쩍'

쌍나팔

○…광주서부경찰은 2일 PC게임방에 위장취업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최모(20·경기도 의왕시)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김모(여·40)씨의 PC게임방에 취업한 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현금 31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광주에 사는 친구집에 놀러왔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김씨의 PC게임방에 위장취업한 뒤 3일 만에 범행에 나섰는데, 경찰에서 "집에 가려는데, 돈이 수중에 한 푼도 없자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PC게임방에 설치된 범행장면이 찍힌 CCTV 화면분석 끝에 최씨를 검거.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